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	
배포 일시	2023. 3. 20.(월)		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박희민 (044-201-4623)
		담당자	사무관	현기창 (044-201-4626)
			사무관	최재기 (044-201-4625)
보도일시	2023년 3월 2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21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	

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도 고속선 수준으로 관리 강화

- 「철도안전 강화대책」 후속조치로 선로 안전성 향상 추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작년에 잇따라 발생한 궤도이탈사고*를 예방하기 위해, 「**철도안전 강화대책**」('23.1월)의 후속조치로 **고속열차 운행비율이 높은 일반선**을 **고속선용 레일로 전면 교체**하고, **선로 유지관리 기준도 고속선 수준으로 대폭 강화**한다고 밝혔다.

*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사고('22.7월),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사고('22.11월)

○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**두 차례의 열차 궤도이탈사고**는 **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 구간에서 발생**한 것으로,

○ 일반선 구간의 레일은 고속선 구간의 레일에 비해 강도 등이 다소 낮은 반면, 열차 운행밀도는 높아 **표면결함이 발생**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**취약 요인**이 존재하였다.

○ 이에 따라, **경부일반선 서울~금천구청 구간, 고속-일반 연결선 대전구간** 등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높은 일반선 구간은 **고속선용 레일로 전면 교체**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,

- 레일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**주기적으로 연마작업을 실시**하고 **분기기 초음파탐상 점검도 확대 실시**하는 등 고속선 수준으로 **집중 점검 및 관리**해나갈 계획이다.

□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높은 노후 일반선은 **올해 레일과 분기기 교체에 본격 착수**하여 **2025년까지 교체를 완료**할 계획이다.

○ 우선 노후화가 가장 심한 **노량진~금천구청 구간**(상하선, 23㎞)은 **올해 안에 고속용 레일로 전면 교체**하고 **분기기도 2024년까지 교체**를 완료하고,

- **서울~노량진 구간**(상하선, 11.6㎞)과 **고속-일반 연결선 대전구간**(상하선, 20.8㎞)은 **2025년까지** 레일과 분기기를 교체할 계획이다.

○ **일반선 구간에 KTX가 지나는 경우** 일반선용 레일과 고속열차 차륜 형상이 서로 달라 레일에 **편마모와 표면결함 발생**이 증가하게 되는데,

- 강도·경도·저항력이 큰 **고속용 레일로 교체**함에 따라 고속열차에 적합한 레일이 설치되어 열차 운행의 **안전성이 향상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와 함께,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 등 **선로에 대한 정기점검 및 관리기준도 대폭 강화**할 계획이며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① 정기점검 결과 **3회 이상 반복적으로 궤도틀림 등의 문제가 발생**하는 경우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**근본적인 개선대책*을 수립**하도록 하고,

* 레일·침목을 지탱하는 선로 하부 자갈 교체, 동일한 강성·단면의 레일 사용 등

- **고속-일반 연결선은 취약개소로 지정**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한다.

② 고속선에만 적용하던 레일 **표면결함에 따른 등급 및 보수·교체기준*을 모든 일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**하여, **일반선의 레일결함**이 보다 **적극적·체계적으로 관리**될 수 있도록 하고,

* 레일 검사결과 표면균열의 형태, 길이 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, 등급에 따라 특별관리, 긴급보수, 즉시 교체 등을 시행

- 레일 표면결함 개선 및 성능 향상을 위해 고속선에만 실시하던 **정기적인 레일 연마작업**도 **고속열차 운행비율 또는 설계속도가 높은 일반선 구간까지 확대 실시**하여 고품질의 레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.

③ 선로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**고속선의 차상진동가속도 측정주기**(기존 1회/2주→1회/주)와 **주요 일반선 구간*의 초음파탐상 점검주기**(기존 1회/연→2회/연)**를 단축**한다.

*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50% 이상 또는 설계속도 200km/h 이상인 일반선

④ 선로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열차 운행속도, 횟수 등을 바탕으로 **선로의 등급을 구분하고 점검·보수기준을 차등화**하는 **'선로등급제'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**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"지난해 발생한 궤도이탈사고로 인한 **철도안전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**할 수 있도록, 선로 유지관리지침 개정, 선로 개량을 통한 품질 향상 등 「**철도안전 강화대책**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**철도안전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**할 것" 이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